



민주당전남도당 5·18 묘역 참배...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당직자들이 2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바른미래당 5·18 묘역 참배... 바른미래당 박주선의원과 권은희 광주시장 위원장, 당직자들이 2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한국당 나홀로 ... “靑 특감반 국조·특검 하자”

###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 포함 국회 상임위 개최 요구도 민주 “정쟁 악용 그만”...바른미래 “검찰 조사 지켜봐야”

여야가 새해 첫날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 규명을 위해 2018년 마지막 날 밤새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격한 공방 속에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여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까지 겹쳐 새해 초반 정국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특감반 의혹 및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최소한 5개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조와 특검은 물론, 상임위 개최 요구를 일축한 상태다.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한 운영위 개최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혹·폭로 정국’을 이어가려는 한국당과 이를 차단하려는 민주당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과 한국당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당 회의 등을 통해 청와대 특감반

의혹을 놓고 거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영위 회의에선) 김태우란 범죄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고사하고, 새해 첫날부터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후안무치한 태도로 또다시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자중자야 하고 반성하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운영위를 겪으면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신 전 사무관 사건에 나타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사

건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따른 국회 기획재정위 소집을 정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에 대한 경고에 대한 한국당의 국조·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하고 KT&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이 문제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덮지 말고, 국회 기재위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 특감반 의혹 국조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당들 오월 묘역서 새해 다짐

### 민주 광주시·전남도당, 바른미래당 일정 시작

광주·전남지역 여야 각 정당 관계자들이 새해를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일 당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송갑석 시당위원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5·18 39주년인 올해 5·18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올 한해 세 계수영대회 성공 개최와 광주형 일자리 성사 등 산적해있는 과제를 해결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서삼석 도당 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민주묘지에서 신년 참배행사를 했다. 서삼석 도당 위원장은 “새해는 도민·당원 여러분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과 직장에 웃음이 넘쳐나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전남 발전과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다시 뛰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전 박주선 의원과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민심잡기에 나섰다.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참배단으로 이동해 분향하고 묵념하며 민주열사의 뜻을 새겼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민주주의 농락”...평화당 “기가 막혀”

### 이순자 망언 각당 반응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말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일 이씨가 전한 인터넷 보수매체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일제히 비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거망동 말라. 국민이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마저 농락하지 말라”면서 “범죄자들과 비호세력의 세 치 혀에서 나온 말들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시 활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을 상대로 온갖 만행을 자행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반성도 없이 변함없는 뻔뻔함을 따를 자가 없음을 분명하다”며 “함부로 민주주의 운운하지 말라. 참회와 속죄로 성실히 (사자 명예 훼손)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경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가 막힌다”며 “한국당의 비협조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욱 진상규명 작업이 절실했다.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전씨는 광주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바에야 전씨 부부는 그 입 다물고 더 이상의 망발을 멈추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유시민 ‘알릴레오’ 내일밤 12시 첫 방송

### 주 1회 방송 ... 전문가 대담 첫 손님은 문정인 특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오는 4일 밤 12시에 첫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노무현재단은 2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그 역사와 맥락을 들여다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주제별 현안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대해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및 노무현 재단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그릇된 의견을 바로잡는 ‘고칠레오’와 노 전 대통령

의 육성 어록을 소개하고 그 배경을 짚어보는 ‘유심(USIM)’ 코너도 진행한다. 첫 초대 손님으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출연한다. 남북·북미 관계 현안,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 등을 주제로 2회분에 걸쳐 방송할 예정이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매주 1회, 토요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밤 12시에 업로드되며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유튜브·아 이튬즈 및 카카오톡·네이버TV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본 방송에 앞서 이날 1

분 짜리 티저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의 동풍을 잠재울 것인지 주목된다. ‘홍카콜라’를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시민이 유튜브를 통해 반격을 한다고 하니 더 흥미롭다”면서 대결구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MBC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제작자로 합류시킨 ‘홍카콜라’는 방송 시작 2주 만에 구독자 15만명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에서 범여권 유력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해들어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중 이낙연 국무총리와 1, 2위를 다투고, 진보와 보수 진영을 망라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전체 1위를 달린다는 조사까지 나왔다. 유 이사장이 이처럼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정치권 바깥에 있었지만 예능 프로그램과 집필 활동으로 대중과 한결을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의 화려한 입담과 뛰어난 글 재주가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과거 날카롭던 이미지를 한층 온화하게 바꿔줬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01749802 point, 877111000 point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